수돗물 담은 '전주얼수' 호감도 높아

맑은물사업소 수돗물 음용률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2.2%p 상승한 56.4% 기록

전주시가 공익 목적으로 각종행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수돗물 병입수 '전주얼수'가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은희영)는 지난 8월 가동된 '전주얼수' 생산시설에서 11월까지 약 4개월여 동안 총 16만병의 수돗물 병입수를 생산·공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주얼수는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3회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행사현장에 8000병이 공급되는 등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열리는 각종 행사에 190회에 걸쳐 총 16만병이 출하됐다.

특히 맑은물사업본부가 지난 10월과 11월 시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수돗물의 음용률을 조사한 결과, 56.4%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 음용률인 54.2%보다 2.2% 상승한 것으로, 맑은물사업본부는 '전주얼수' 생산·공급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주시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맑은물사업본부가 올해 2차례 실시한 전주얼수 시음회에서도 전주얼수의 우수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지난 7월 중앙시장 부근에서 진행된 1차 시음회에서는 전주얼수와 정수기물,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 등 3개의 음용수를 놓고 시음후 호감도를 비교한 결과, 전주얼수에 대한 호감도가 46%로 정수기물(37%)과 먹는샘물(1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지난 9월 남부시장 인근에서 진행된 2차 시음회에서도 전주얼수 호감도가 50%로 나타나, 정수기물(19%)과 먹는샘물(31%)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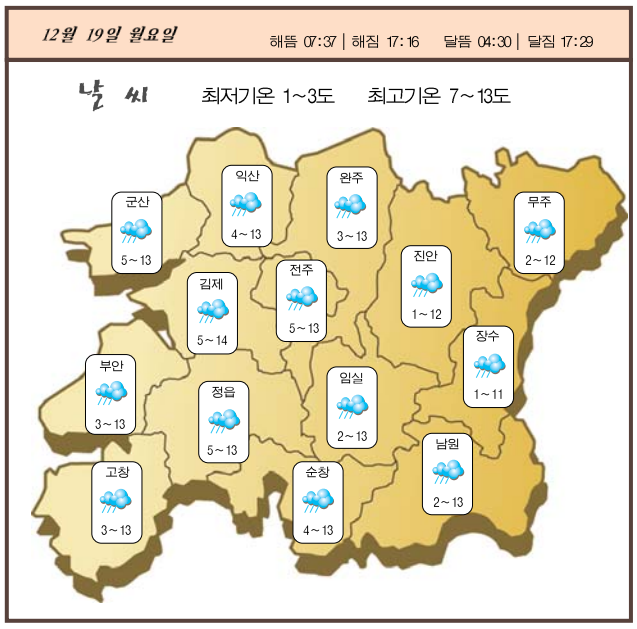
이에 앞서 시는 청정1급수인 용담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해 생산된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어떠한 수돗물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수돗물의 음용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병입수 생산시설을 갖추고 전주얼수를 생산·공급하게 됐다.

이형원 전주시 수질관리과장은 "전주시는 내년도에도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전주얼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수돗물의 막연한 불신을 없애고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도,시군 건설교통공무원 소통강화 워크숍

지난 16일 남원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린 2016 도,시군 건설교통공무원 소통강화 워크숍에 김일재 행정부지사가 건설교통분야 6개 시책에 대한 최우수기관 표창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 학교가 달라진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올해 학교숲 조성에 1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9월 '전라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전주와 군산 등 시지역의 6개 학교에 3,00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을 투자해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했다.

학교숲 조례는 자연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한 학교숲 조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지난 2014년부터 학생들의 심성을 치유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전주솔내초, 군산은파초 등 총 6개 학교의 신축과 개축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운영, 학교시설 감성화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아이디어도 반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봉곡초 등 10개 학교의 신축공사와 운동장, 실습동 등 조성과정에서 창조적인 놀이공간 조성에 맞는 설계에 힘쓰고 있다. 내년부터는 10개 이상의 학교에 이같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벽화 그리기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감성공간을 조성하고 학생 참여와 예술가들의 기부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벽화 그리기 사업은 올해 전주 진북초, 군산 용문초, 익산 이리북일초 등 총 20개 학교에서 완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을 감성화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성을 치유하고 학생 인권과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전주시, 민간기록물수집공모전 입상작 선정

100년 전 전주 기후 · 환경 · 문화 · 체육 등이 담긴 선친일기 대상

전주시는 시민들의 삶이 담긴 자료와 전주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기록물을 수집, 전주의 기록유산들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1회 전주 관련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 접수를 통해 총 54건, 약 210여점의 민간기록물이 접수됐으며, 입상작을 선정하기 위해 12월 14일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에서 대상 1명, 최우수 1명, 우수 5명, 장려 20명, 총 27명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결과 대상은 1916년 5월에서 8월까지 쓴 이용엽(신청자)의 선친의 일기로 진안에서 전주농고로 진학하여 전주의 환경·기후·산업·문화·체육 등 사회 전분야의 관하여 기술함으로써 당대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됐다.

대상을 받은 이용엽 선생은 한문으로 기재된 선친일기를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문으로 번역하는 등 선친일기의 보존과 활용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우수상은 1938년 건립돼 전국에서 제일 오래된 경로당인 기령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인 일기가 선정됐다.

우수상으로는 전주 흑석골에 위치했던 천양제지 공장 사진 23점, 70년대 전주를 대표하던 요리점·카페·다방·은행 등의 홍보용 성냥갑 23점, 과거 한옥마을에서 위치했던 문화연필 공장의 스크랩, 현재 존재하지 않는 완산비를 탁본한 고종황제 친필 비문 탁본 배접, 전북일보사·국민학교의 봉급표 및 전북대 구정문 사진이 선정됐다.

시는 지속적으로 전주 관련 기록물 수집 공모전 추진, '전주정신의숲' 설립과도 연계해 전주기록문화콘텐츠기초자료를 꾸준히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남부시장 야시장 소방안전 훈련

전주시가 소방안전 훈련을 통해 남부시장 야시장을 화재 없는 안전한 관광명물로 지켜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16일 남부시장 야시장에서 완산소방서 교동 119안전센터와 남부시장번영회,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안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많은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야시장 운영시간 중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주요 훈련내용은 △화재발생 시 이동 판매대의 신속한 대피 △관광객 대피 유도 △시장 내 소화장비 등을 이용한 초기대응 △소방차 진입훈련 등이다.

이와 관련, 시와 남부시장 상인회 등은 야시장 및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방, 전기안전 및 화재상황 발생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장 내 스프링클러와 화재감지장치 등 소방시설 작동 등을 점검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위탁 교육기관 근로자도 '성범죄 조회'

앞으로 위탁교육기관, 가정방문 학습 교사도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는 등 취업 제한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

지난 15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가정방문 등 학습 교사를 둔 사업장도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에 추가되는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으로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이나 사업체의 대표는 취업예정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해당지역의 경찰서에 동의서를 첨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고 교육감은 이들 기관과 사업체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다. 또 교육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연1회 이상의 성범죄자의 취업여부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정해은기자